

엠에스오토텍 2분기 영업이익 88억 원, 전년 동기비 34.3% ↑

- ▶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두 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
- ▶ 현기차 대응 강화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동시 드라이브... 내실 있는 성장 이룰 것

본 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 확인 후 검토 부탁드립니다.

<2018-08-14>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기업 (주)엠에스오토텍(123040, 대표이사 이태규)은 14일 공시를 통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,886억 원, 영업이익 88억 원, 당기순이익 57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.

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.3%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.3%, 1,141.0% 급증했다.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38.2% 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전환했다.

글로벌 전기차 기업에 대한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분기 성장을 견인했다. 국내 완성차 업체향 매출 역시 전 분기 대비 확대돼 실적 개선에 일조했다.

하반기에도 국내외 고객사 수주 증대에 기반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. 거래선 다변화에도 힘 쏟고 있다.

명신산업을 주축으로 한 관계사 지배구조 개편 효과도 기대된다. 엠에스오토텍의 자회사 명신산업은 지난 6월 인적분할을 통해 핫스탬핑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, 7월 심원테크를 100% 자회사로 편입하며 해외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했다. 이에 따라 엠에스오토텍이 전기차 대응 강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.

엠에스오토텍의 이태규 대표는 “건실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 끝에 전 분기, 전년 동기과 비교해 모두 실적이 향상됐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”며 “엠에스오토텍의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단순히 매출 볼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☎ 자료문의 (주)엠에스오토텍 안병호 과장 (054-770-1960)

(주)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(010-8909-4042), 김물결 선임 (010-5104-3756)